

NEWS LETTER

2021년 9월 06일 Vol. 416

심장수술 잘하는 1등급 병원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8월 26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에서 5회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심평원의 이번 평가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허혈성심질환자의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85개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평가내용은 ▲수술 건수 ▲수술 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수술 후 합병증(출혈,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수술 후 재입원율 등에 대한 것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많은 경험과 높은 정확도를 바탕으로 고난도 의료에 있어 신속하게 대응하고 심장수술 분야에서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구급차 안전운행 기원제 봉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8월 30일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신규로 도입한 구급차 안전운행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무사고 안전 기원제를 봉행했다. 이날 기원제는 지도법사 능지 스님이 기도문을 통해 안전운행을 기원했으며, 채석래 의료원장을 비롯해 권범선 일산병원장, 최기석 행정처장 등 각 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구급차는 지난해 상월선원에서 지원금 4천만 원을 전달해 구입하게 됐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해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입재부터 회향까지 움직이는 약사전이 되어 결사대중의 건강을 책임졌다. 권범선 병원장은 “앞으로도 교계의 간절한 힘과 원력으로 자비의료실천을 위해 불교병원 교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희귀질환 아동에 치료비 6백만원 전달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지난 9월 1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희귀질환으로 치료 중인 난치병 어린이를 위해 치료비를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과 사무처장 해공스님, 김나인(가명)양 어머니를 비롯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권범선 병원장, 최기석 행정처장, 지도법사 능지스님이 참석했다. 치료비 전달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김나인(가명 3세)어린이의 사연을 알게 돼 치료비 6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나인이는 염색체 이상으로 장기가 과다 발육되고, 여러 형태의 종양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큰 '베크위트-위드만 증후군'을 앓고 있다. 아동의 아버지는 가족과 소식이 끊긴 상태로 '한부모 가정 지원' 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아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시니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2021년 하반기 친절직원 시상식전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21년 하반기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9월 2일 친절 우수 교직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2021년 하반기 친절 우수 교원으로 흉부외과 최민석 교수가 수상했으며 신경외과 정현철 전공의와 92병동 손소연 간호사가 친절직원에 각각 선정됐다. 또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에서는 한방내과 최동준 교수가 친절직원에 선정됐다. 친절직원 선정은 고객과 직원들이 작성한 칭찬 글을 취합해 선별되며 선별된 직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향후 3분기부터는 기존 친절직원 시상식 명칭이 '환자가 추천하는 우수직원상'으로 변경되며, 분기별로 카카오알림톡 설문조사 결과와 칭찬 글을 취합해 선별하며 우수직원에게는 금배지를 수여 할 예정이다.

